

“피해자 보호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 아시나요”

범죄피해평가제 전국 전면 시행
피해자 면담 후 정신적 피해 첨부
광주·전남 2020년 하반기부터 실시
올해부터 ‘신속평가 절차’ 도입도

#광주에 사는 A씨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B씨로부터 “다시 만나자”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당했다.

이별 후 괴롭힘을 이유로 이미 한 차례 형을 살고 나온 B씨는 A씨를 끊임없이 찾아갔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했고, ‘피해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성이 높다’는 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해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물리적 피해가 없었음에도(범죄피해평가제도 덕분에) B씨를 신속하게 구속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남에 사는 C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여성 D씨를 쓰러트리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D씨에 대해 실시한 범죄피해평가서(전문가 의견서)가 증거로 채택됐고, C씨는 징역형에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가 전국 모든 경찰서로 확대 시행된다. 신속평가 절차도 도입돼 피해자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이날부터 ‘범죄피해평가제도’가 기존 230개 경찰서에서 전국 모든 경찰서(258개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평가’는 강력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상황 등을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나 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사건 담당 수사관이 범죄 구성요건 위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던 만큼, 심각한 정신적 피해 내용이 수사보고서에 담기기 어려웠다.

해당 제도는 충격 등으로 본인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입장을 수사 초기부터 반영하고,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 심리적 치유를 돕겠다는 취지다.

경찰서에 위촉된 외부 심리전문가가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피해 상황을 평가보고서로 작성 후 검찰과 법원에 넘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적극 주장할 수도 있다.

현재 광주경찰과 전남경찰에 위촉된 외부 심리 전문가는 각각 6명과 14명(전남은 4명 추가 위촉 계획)이다.

이들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두 차례 피해자 면담을 통해 범죄 트라우마나 2차 피해 등 수사기록에 담기지 않은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한다. 정신적 피해 내용을 수치화 해 검찰이나 법원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돕는다. 담당 형사들도 피해 경위 파악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됐다.

지난 2016년 경찰청이 처음 도입했고, 광주경찰과 전남경찰은 2020년 하반기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했다.

광주에서는 △2020년 14건 △2021년

44건 △2022년 52건이, 전남에서는 △2020년 3건 △2021년 43건 △2022년 46건이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신속평가 절차’도 도입해 기간을 단축,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신속한 범죄피해평가가 필요한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경찰들은 해당 제도가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도 제고와 신속한 피해 회복에 큰 기여를 했으며 제도의 확대를 강조했다.

강박재 전남경찰청 피해자보호계장은

“제도에 대한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며 “특히 여성 피해자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심리 상담 과정에서 마음에 위안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사건의 경우, 피해평가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바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담, 평가서 작성 등(범죄피해평가) 절차에 몇 주가 소요되는 탓”이라며 “올해부터는 ‘신속평가’가 도입돼 최소 3~5일로 그 기간이 단축됐다. 사건 수리

전에 범죄피해평가 서류를 첨부, 반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해당 제도가 더욱 확대 시행돼 피해자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판교 광주경찰청 피해자보호계장 역시 “현재 외부 심리전문가 6명이 피해자 면담부터 의견서 작성 등 업무를 보고있다”며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필요시 법심리학회 등에 의뢰해 전문가들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lotus@jnilbo.com



인도네시아 교육 관계자 호남대 방문 인도네시아 엘랑가대학 수교 위도도 교수와 포노로고시 레나 교육감, 교 교장단과 고교생 28명이 13일 호남대학교를 방문해 유학시스템과 기숙사 등에 대한 설명과 현장을 둘러본 후 박상철 호남대 총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남대 제공

광주교육청,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교육부, 광주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광주운암초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합동 점

검은 학교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해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광주운암초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통안전진단 차원에서 광주운암초 부근의 아파트 및 상가 등의 구조적인 안전 문제 유발 사안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

다. 점검팀은 △사고 발생 현장 확인 △사고 발생 원인 파악 △사고 발생 대책 파악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현행화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이후 진행된 협의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인 ‘드롭 존’ 설

광주경찰 등 기관 합동 실시
운암초 부근 사고 원인 파악
드롭존 설치 등 방안 협의도

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유선주 시교육청 안전기획담당 사무관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드롭 존’ 설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현실적으로 학교 부지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은 오히려 학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유관기관과의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점차 개선하기로 했다.

노정환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과장은 “우리 시교육청은 ‘드롭 존’ 정책 이외에도 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www.왕인문화축제.kr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2023 K-컬처의 시작, 왕인의 빛 영암왕인문화축제

Yeongam Wangin Culture Festival 2023

3. 30.(목)~4. 2.(일) 전남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일원

개막행사 ‘K-컬처의 시작, 왕인의 빛’ : 3. 30.(목) 19:00 / 왕인박사유적지 주무대

K-컬처, 왕인!

- 왕인 어린이 독서골든벨
- 왕인 천자로 월드
- 북카페 ‘왕인의 숲’
- 플로깅 역사투어 ‘왕인산보(散步)’
- 박사왕인 행차길놀이
- 외국인 미션투어 ‘헬로 왕인’
- 글로벌 왕인투어 ‘어서와~ 영암은 처음이지?’

K-웰니스, 영암

- 영암 전통 민속놀이
- 오감만족 힐링 체험
- 왕인의 숨결! 영암 문화 체험
- 구림벚꽃길 걷기대회
- 구림마을 자전거투어
- 구림마을 벚꽃여행
- 기찬영암 관광투어
- 영암 푸드·쇼핀랜드

대표프로그램

테마파레이드
‘K-레전드, 왕인의 귀환’
4. 2.(일)
14:00~15:30
상대포역사공원
→ 구림마을
→ 왕인박사유적지

야간문화행사

3. 30.(목) 19:30~21:00	개막 특집방송 K-트롯트 콘서트
3. 31.(금) 19:00~21:00	국립공원월출산 생태탐방원 영암 유치기원 음악회
3. 31.(금)~4. 1.(토) 19:00~20:00	구림마을 달빛야행
4. 1.(토) 20:00~21:00	달빛 디제잉파티 新年파진가
4. 2.(일) 18:00~20:30	폐막행사 ‘구림의 밤’
3. 30.(목)~4. 2.(일)	왕인로 빛의 정원 빛을 품은 구림마을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 061)470-2346~50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 061)470-2259
영암군홈페이지 : www.yeongam.go.kr

www.왕인문화축제.kr 왕인문화TV
www.facebook.com/wanginfesta www.instagram.com/wanginfesta

주최 | 영암군 YEONGAM-GUN 주관 |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